2015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한겨레신문사

2015년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보고 범위: 한겨레신문사 및 속한 모든 계열사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주기: 매년 보고
담당 부서: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Tel. 02-710-0070
Fax. 02-710-0080

목 차

1. 보고서 개요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2) 한겨레신문사 소개
   3) 2015 하이라이트

2.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보고
   1) 인권
   2) 노동
   3) 환경
   4) 반부패

1. 보고서 개요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2) 한겨레신문사 소개

   3) 2015 하이라이트

지지선언문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언론입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세계 유일의 국민주 신문으로 1987년 창립·발간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 언론을 표방하며,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뒤, 올해로 일곱 번째 보고서인 '2015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한겨레신문사의 실천을 보고하려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왔으며, 사규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인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환경보호', '부패방지 및 척결'에 대한 세부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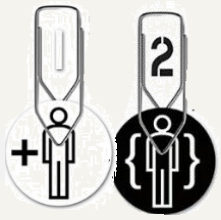
또한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는 취재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 소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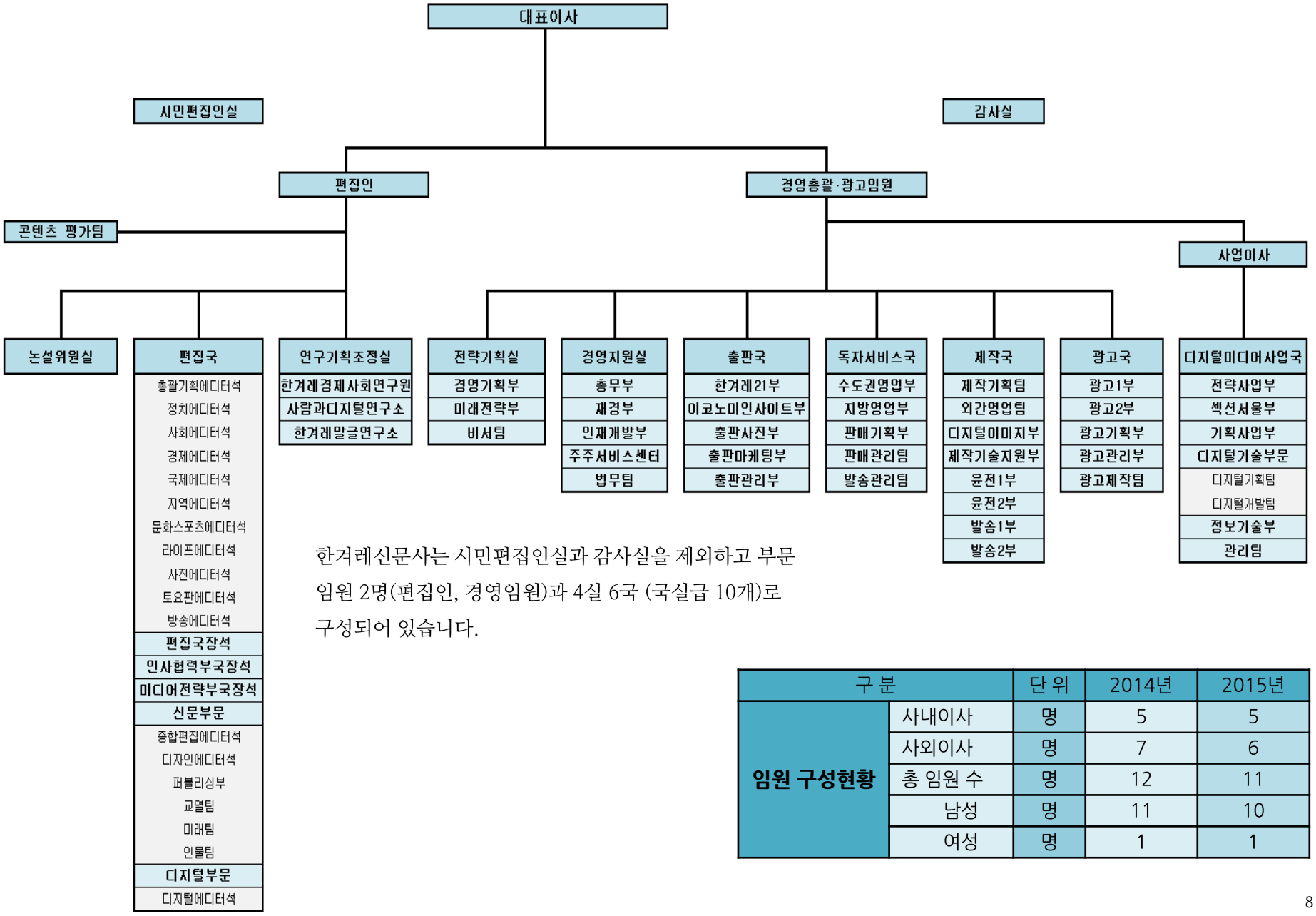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한국 민주화의 결실로 1987년 12월 창립되었습니다.

정치·경제 권력에서 자유로운 참언론을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설립된 한겨레신문사는 세계 언론사에 유례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합일간지 〈한겨레〉를 포함해 주간지〈한겨레21〉, 〈씨네21〉, 월간지〈이코노미인사이트〉, 인터넷한겨레, 웹방송하니TV 등 다양한 매체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업체명	한겨레신문㈜		
사업 영역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서적 및 출판인쇄 •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 광고 제작 및 판매 • 교육 서비스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 방송채널사용 • 부가통신사용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임직원 수	584명
		UNGC 가입일	2007년 8월
		CoP 발간	2010-2015년
		주소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연락처	1566-9595

한겨레신문사 소개: 조직도 및 임원 구성



한겨레신문사는 시민편집인실과 감사실을 제외하고 부문 임원 2명(편집인, 경영임원)과 4실 6국 (국실급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단 위	2014년	2015년
임원 구성현황	사내이사	명	5	5
	사외이사	명	7	6
	총 임원 수	명	12	11
	남성	명	11	10
	여성	명	1	1

2015 하이라이트

반부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내부 규정 및 교육

편집권 독립 및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노력

노동

전년도 대비 임직원 연평균 교육시간 및 교육비 2배 가량 지원 확대

노조 가입 비율 85.6%

환경

전년도 대비 종이원료 사용 총량 103톤 감소

가스사용량 전년대비 13% 감소

2015 마포구청 '에너지절약우수건물' 선정

인권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발한 보도활동

성·학력 ·인종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및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

〈한겨레〉 ' 나눔꽃 캠페인' 진행

2.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보고

1) 인권

2) 노동

3) 환경

4) 반부패

1) 임직원 인권 존중

〈한겨레신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적으로 선언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단체협약 제 5장 46조를 통해 임직원 권리를 명시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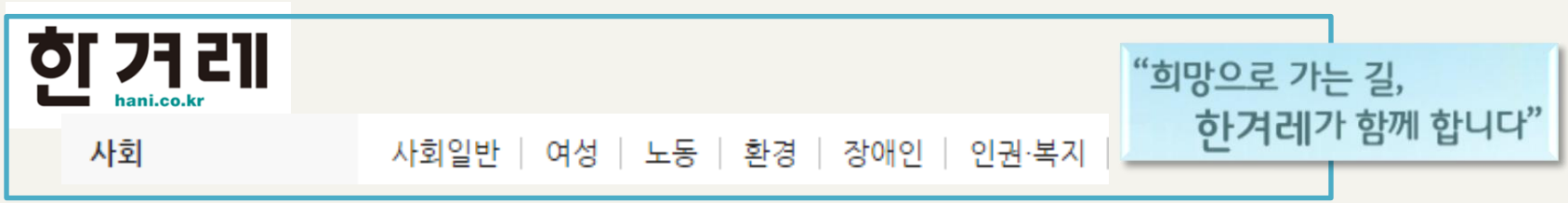
단체협약 5장 46조

-제 46조 (노동조건 원칙)

1. 회사는 적정한 노종조건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설 확보에 노력한다.
2. 회사는 증면 (혹은 감면), 새로운 매체 창간 (혹은 폐간)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현저히 변경시키게 될 때는 사전에 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2) 인권 분야 보도 노력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 온라인 뉴스의 사회 면에 여성, 노동, 환경 분야와 더불어 인권 분야의 기사를 별도로 구분해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독자권익위원회와 시민편집인 운영

〈한겨레신문사〉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 보호와 시민사회 의견의 적극 반영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자율적인 구제를 위해 일하며, 시민을 대표해 신문 제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 독자권익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 권익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신문제작과 관련된 독자의 목소리를 편집위원회와 시민편집인에게 전달합니다.

+ 시민편집인

한겨레는 독자가 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편집 또는 제작과정에서 독자의 권익을 충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편집인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 6조 고충처리인 조항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 9조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조항에 근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4) 인권 증진 활동

맘스콘서트 개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싱글맘을 편견없는 따뜻한 광장으로 불러내자는 취지로 2015년 4월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콘서트입니다.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모지원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학생인권 회복 위한 '가족사랑 친구사랑 걷기대회'

2015년 5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인 '가족사랑 친구사랑 걷기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아동인권을 위한 '보트 포 차일드'

2015년 4월, 〈한겨레21〉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대 총선에서 '아동을 위한 투표'를 제안하는 캠페인인 '보트 포 차일드'(Vote for Child)를 진행하였습니다.

'귀향' 뉴스펀딩을 통한 후원금 전달

〈한겨레 21〉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의 제작 후원금 2억 5093만 4270원을 인터넷포털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전액을 조정래 감독에게 전했습니다.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 캠페인은 한겨레에서 2009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연을 지면에 소개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입니다. 2015년 11월에 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자살 시도자 이야기를 〈한겨레〉 소개, 약 1800만원을 수술비용으로 보탰습니다.

5) 인권 관련 보도활동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사회소수자 등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안부 문제 25년 성과, 정부가 무너뜨려”
〈한겨레〉 2015.12.29일자

‘평화’와 ‘여성’의 이름으로 ‘증오’의 DMZ를 가로질렀다 〈한겨레〉 2015.5.24일자

세계 여성의 날…'성소수자 품은 성평등 시대로’
〈한겨레〉 2015.3.8일자

박상옥 말고 여성 대법관을
〈한겨레〉 2015.3.5일자

아동

아동 학대 피해, 그보다 더한 멍
〈베이비트리〉 2015.2.3일자

교육 기회 박탈당한 아이 1억2100만명…해법 찾기 머리 맞댄 ‘세계 교육리더’
〈한겨레〉 2015.5.19일자

사회소수자

테러방지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우려
〈한겨레〉 2015.12.17일자

장애인노동자 40% “내 월급 얼만지 몰라”
〈한겨레〉 2015.10.27일자

민중총궐기때 경찰 ‘기승전 인권침해’
〈한겨레〉 2015.11.20일자

1)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위한 노사협의회

한겨레신문사는 〈단체협약 제3조〉에 근거, 전체 임직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대표, 대표이사 및 각 노사 동수로 대표자가 위촉한 직원들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발생 시에도 임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인센티브 지급, 경영진 선출제도 개선 등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또한 노사간 원활한 대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상시적으로 경영진과 조합 상급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에서 발간된 2015년 노동조합 소식지 한소리 100호〉

+ 단체협약

-제3조 (노동3권 보장)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7조 (조합 활동 방해 금지)

회사는 노동자의 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며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제11조 (조합 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제89조 (설치목적)

회사와 조합은 본 단체협약 전문에 표현된 바를 이루기 위해 쌍방간의 협의 창구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90조 (협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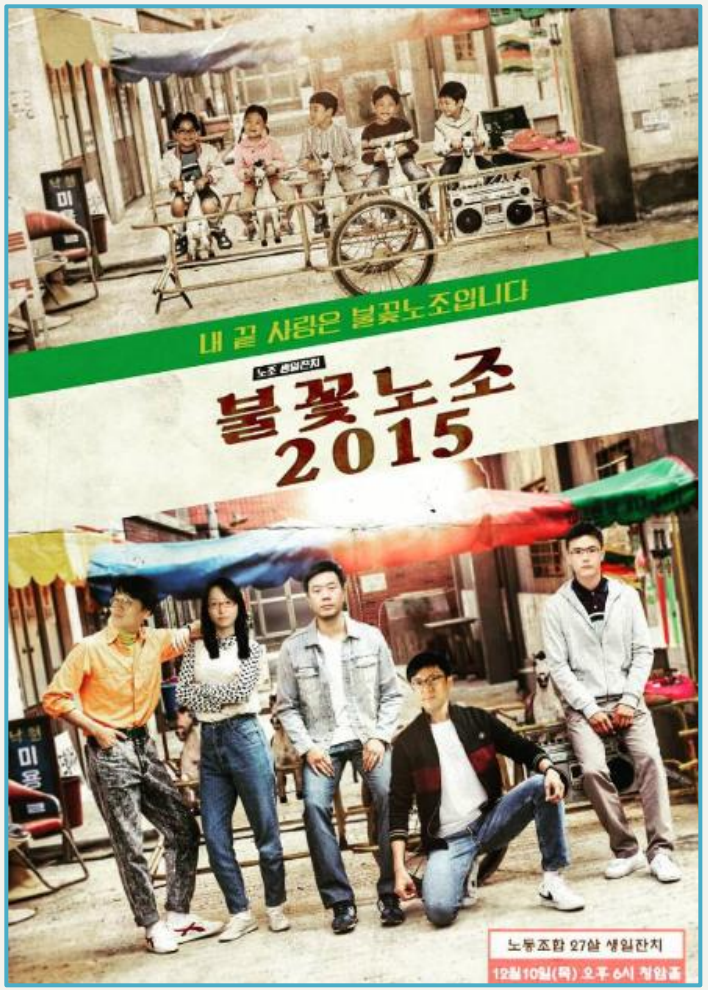
본회는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제94조 (회의) - 2009.8.27 개정

1. 본회는 매분기 1회씩(1, 4, 7, 10월)하고 회사와 조합 어느 일방이 의제를 부의 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왔을 때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활 동	상세 내용
동아리 / 학술모임 지원	활동비 지원
여가(캠핑)지원	여가비 일부 지원
생일자 선물	생일자 선물 증정
생활자금대출	대상자 선별을 통한 생활자금 저리 대출
사내카페테리아 운영	사내 카페테리아 '짬'운영
근로자 쉼터 운영	건강, 휴식을 위한 안마기, 혈압기 등 비치, 운영
그 외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조합원 쾌유기원 성금모금, 바자회 등



2015년 노조 가입 대상 구성원 수는 584명,
그 중 85.6%인 500명이 노동조합을 가입하였습니다.

한겨레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차별 방지 노력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성희롱예방지침〉 등 차별금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내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위원회 규정' 내 의의 제기 조항 및 징계 조항을 두어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사내 여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조직구분	대상
여성 사우회	한겨레 내 여성직원
여성 기자회	한겨레 내 여성기자
한우리회	한겨레 내 경영관리직 여성직원

〈여성회 활동 및 회계보고〉

* 회계 보고 기간 : 2013년 12월 19일~2015년 12월 11일)

적요	수입	지출
이월금	1,372,529	
2013년 총회 식비		340,000
2013년 총회 선물 추가 구매비		146,000
회의비 (총 6회)		68,100
우편료(총 2회)		19,000
2014년 정년퇴임 선배 행사비		185,830
2014년 초복 행사비		380,500
2015년 총회 상품권 구매비		3,698,850
여성회비(총 24회)	6,192,000	
잡이익 (예금이자 총 8회)	5,571	
소계	**7,570,100**	**4,838,280**
잔액		**2,731,820**

4) 공정한 인사 평가 제도

한겨레신문사는 직원의 역량과 근무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휴직, 연수나,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입사 후 1년 미만 등-등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인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개인의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부서장의 1차 평가를 거쳐 상급관리자의 2 ~ 4단계의 평가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자들의 상향평가 등 다면평가 결과도 동일하게 반영돼 최종 평가등급이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평가자 면담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로상, 노력상, 특종상 등 매달 부문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한겨레신문사는 직원 개개인의 일과 삶이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규정 사규'에 따른'고용 평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사 공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보육수당을 지원하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속기간 5년 단위로 15일씩, 10년 단위로 30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식휴가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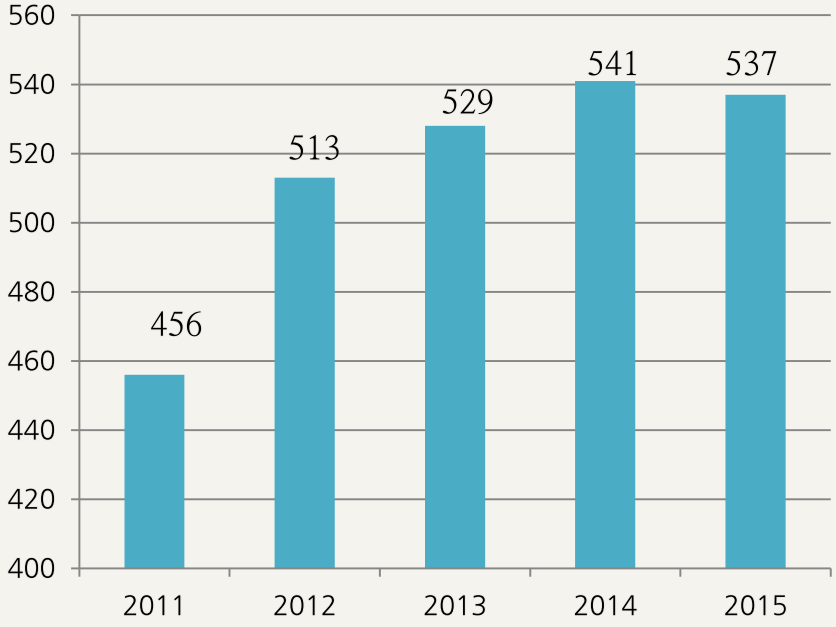
〈남녀 직원별 육아휴직 사용비율 및 업무복귀율〉

구 분		2014년		2015년	
		단위	비율	단위	비율
육아출산휴가 사용 비율	남성	4명/394명	1.0%	5명/402명	1.2%
	여성	5명/179명	2.8%	11명/182명	6.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보유율)	남성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여성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 없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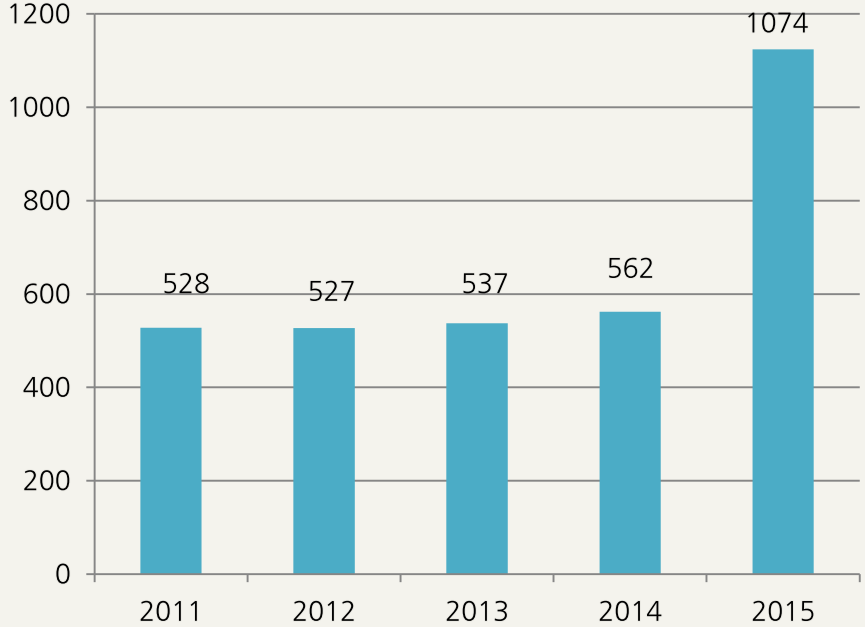
6) 남녀 평등 가치 전파를 위한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남녀 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내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2배로 시간을 늘려 총 1124시간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 92%에 해당하는 총 537명의 임직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인원〉



〈성희롱 예방 교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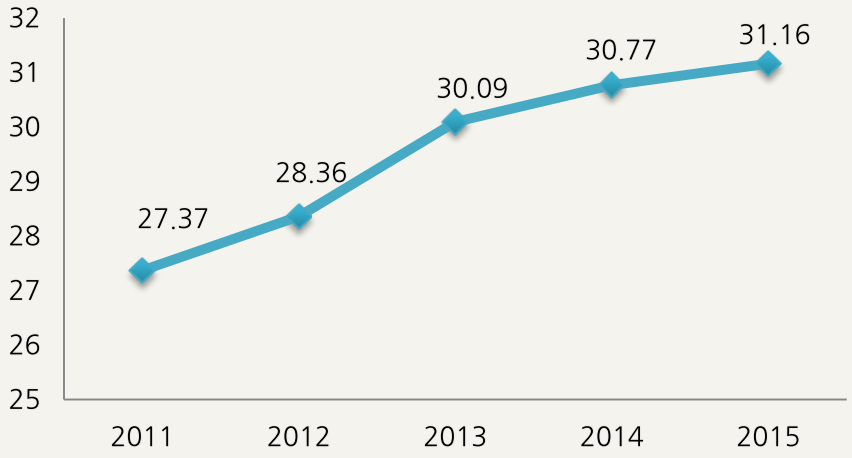


7) 평등한 채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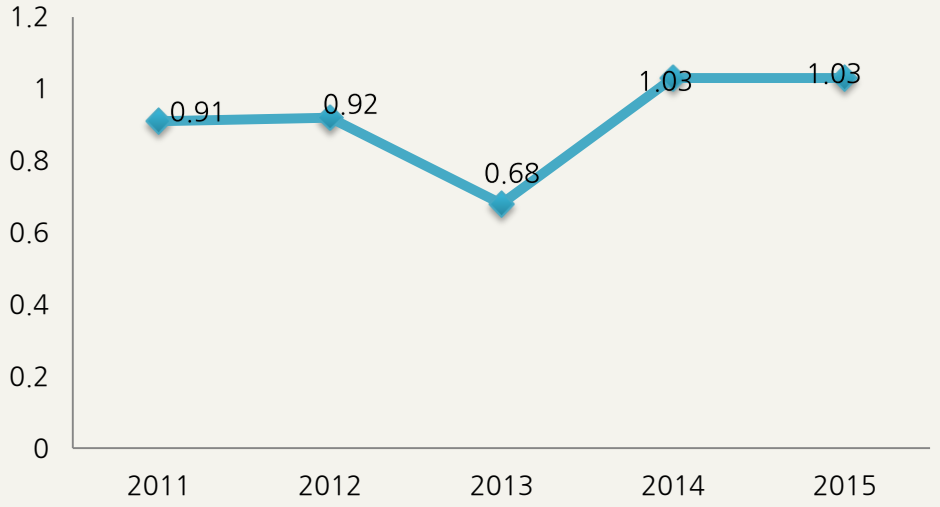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에 대한 채용 우대 정책을 통해 소수계층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채용 우대
장애인	서류 전형 시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자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채용 진행시 보훈청에 의뢰해 특별추천서 접수

〈여성 직원 비율〉



〈장애인 직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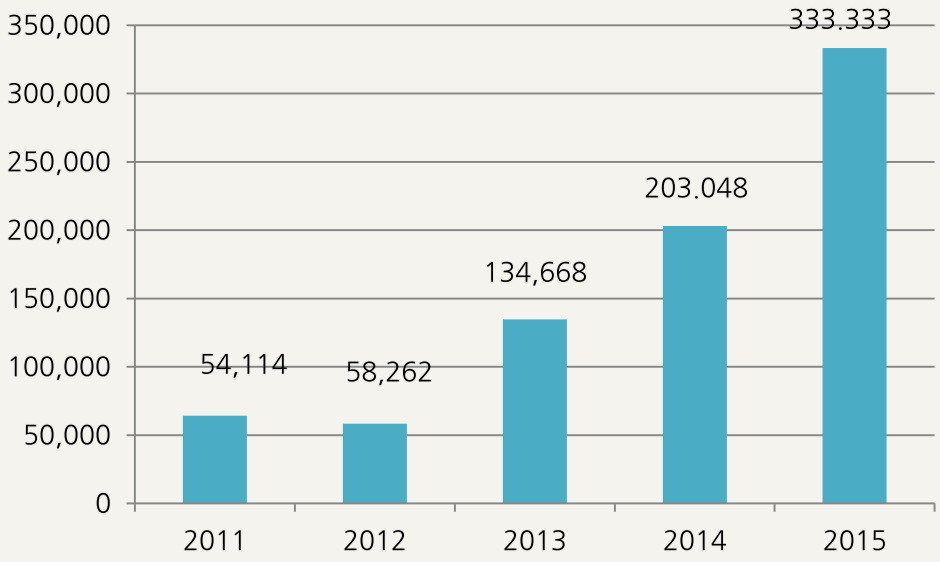
8) 임직원 역량 개발 지원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직원 1인당 교육비를 2배 이상 늘려 사내 약 10개 학습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그룹별로 월 30 ~ 35만원 지원하는 등 임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연평균 교육 시간 및 비용 등〉

구 분	2014년	2015년
직원 연평균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 총 직원 수)	4시간	10시간
인당 평균 교육비 (총 교육비 / 총 직원 수)	203,048원	333,333원
외부 교육 지원 건수 및 비용 총액 (한국언론재단 등)	9건/무료	301건

〈임직원 연평균 교육액〉



9)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휴양시설 운영 지원을 포함해 여가생활,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복리후생제도 (2015년 기준)〉

구분	정책 및 프로그램	2015년 운영 내용 및 성과 (혜택 대상자 수, 지원 비용 및 시설 등)
여가생활 지원	휴가 및 안식년 운영	정기휴가3일/ 10년마다 30일, 5년마다 15일 안식휴가 부여
	휴양시설 운영	- 법인회원 : 무조리조트, 일성콘도, 횡성 제너두펜션 - 법인평일이용회원 : 대명리조트
출산/모성 보호 지원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수유실 (냉장고,소파,세면대 구비),여성숙직실
	모성보호 휴가 관련 제도 (여직원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등)	산전후휴가,육아휴직(1년) 및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수유시간(생후 1년미만 1일 2회 30분) 태아검진휴가(임신 여직원 월 1회)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시차출퇴근제(1시간 이내 조정)
주거/생활 안정 지원	재해지원금: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지원	재해부조금(주택완전손실 기본금의 600% 외)
	신설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긴급대출제도(가계부채나 보증으로 생활고를 겪는 직원
의료/건강 지원	임직원 건강검진 및 가족건강검진 지원 임직원 건강상담 프로그램	종합검진 연세세브란스 체크업 위탁/ 대상자: 327명 * 350,000원/인 = 114,450,000원 지역병원 : 6,997,380원 (20명) 건강상담 월 1회(순천향대학병원 위탁)
교육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대학생 학기 240만원 내 년 470,453,980원 지원, 443건
법정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제도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선택적 복리후생	연 55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1년 이상 재직자 연 55만 복지포인트 지원
그 외 기타		임직원 전용 e가전제품할인몰 협약 등

10) 노동 관련 보도활동

한겨레신문은
노동조합, 비정규직,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등의
노동이슈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조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15.9.14일자

삼성전자·LG전자, 외국업체 비해 '인권경영' 뒤처져 〈한겨레〉 2015.1.4일자

대우조선, 채권단·경영진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한겨레〉 2015.10.27일자

비정규직

굴뚝 위 노동자의 절규에 쌍용차가 답할 때다
〈한겨레〉 2015.1.9일자

해도 너무한 후진국형 대기업 산재 사망사고
〈한겨레〉 2015.7.5일자

작업장안전/보건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2015.12.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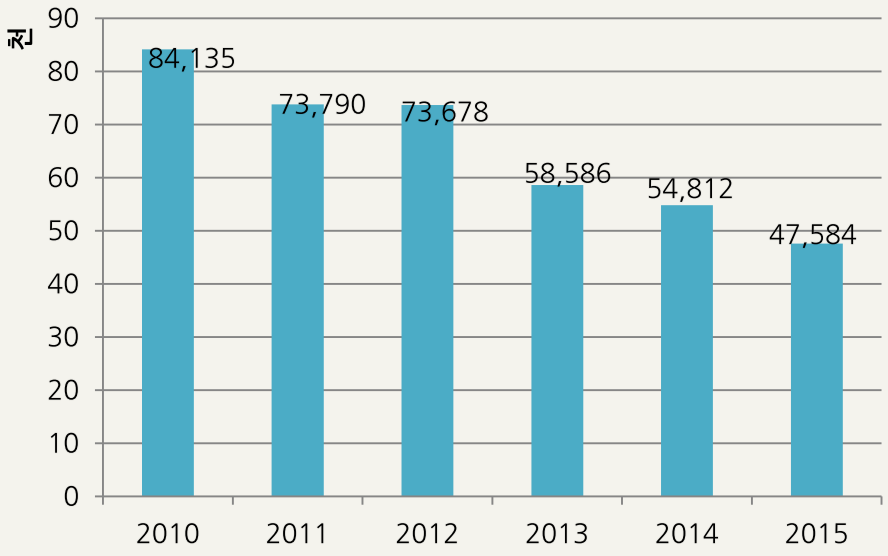
'노골적 봐주기' 검찰의 현대차 불기소
〈한겨레〉 2015.12.21일자

1) 가스 · 물 절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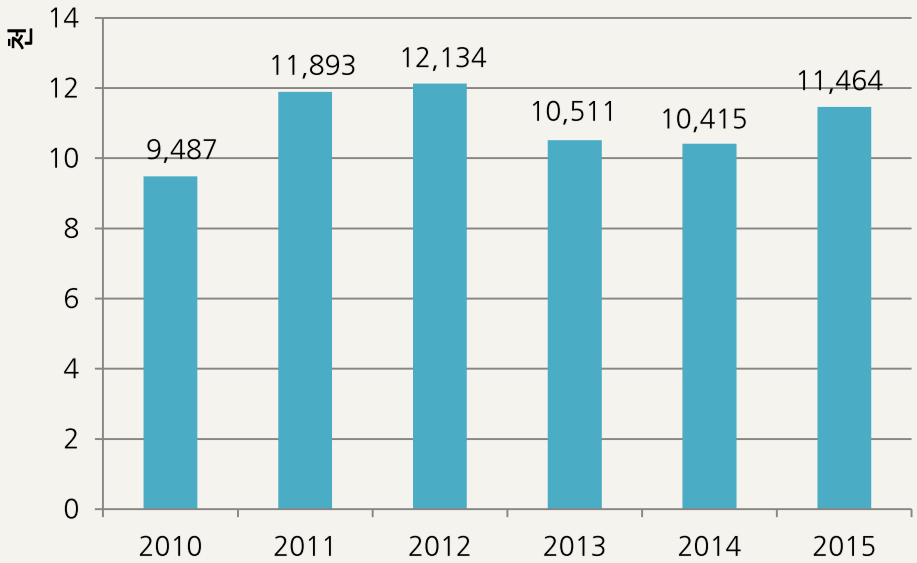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사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사 내 가스는 온수기(냉방, 난방) 가동, 윤전실 난방, 겨울철 난방, 윤전실 샤워용 온수, 세면대 온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스사용량은 47,584m^3 로 전년 대비 약 13.19% 감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스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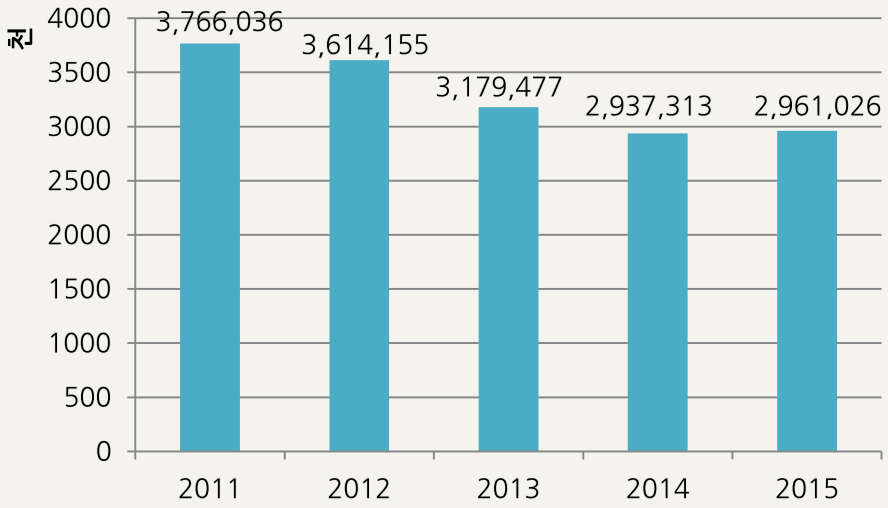
〈상하수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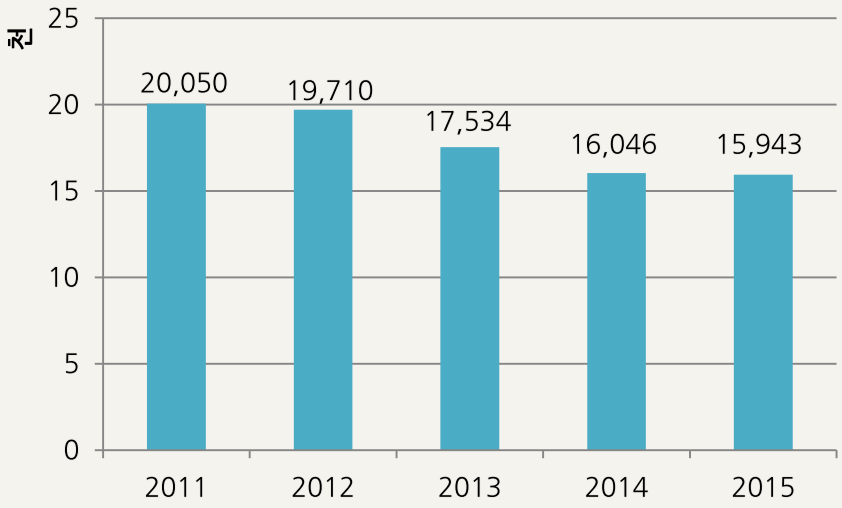
2)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약

한겨레신문사는 매년 종이 및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매달 소량 LED면광원을 구입하고 사무실 80와트 등기구에서 LED면광원 50와트로 416개를 교체함으로써 2015 마포구청 '에너지절약우수건물'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신문 발송 공정에서 발생하는 PE필름 지관을 버리지 않고 공급사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한 결과 2015년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 원료 사용 총량은 전년보다 103톤 감소한 15,943톤이었습니다. (신문파지 298,061kg, ps판 39,703kg ,지관 64,210kg를 재사용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



〈종이 사용량〉



3) 환경 관련 보도활동

환경경영 개념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더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영

높아진 환경·사회의식…기업가치 '질적 변화' 이끈다
〈한겨레〉 2015.10.13일자

우리 회사가 키운 '재능' 우리 사회가 함께 써요 〈한겨레〉 2015.11.30일자

기업 사회책임경영 이행,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한겨레〉 2015.12.10일자

친환경 정책

환경부, 또 부끄러움 쌓을 것인가
〈한겨레〉 2015.8.24일자

국가간 불평등은 모든 국가의 문제… 함께 대안 찾아야
〈한겨레〉 2015.8.24일자

기후변화 대응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점수는 꼴찌
〈한겨레〉 2015.12.2일자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 경쟁력 하락한다고? 〈한겨레〉 2015.2.2일자

1) 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

한겨레신문사는 창간과 함께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회사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언론자유의 수호','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독자의 반론권 보장','오보의 정정','취재원의 보호','사생활의 보호','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한 자세','언론인의 품위','사내 민주주의 확립' 등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언론자유의 수호, 금품수수금지, 보도 및 논평자료 활용지침, 취재 및 여행경비에 대한 지침,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 외부활동 지침 등

2) 윤리위원회 운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임명 후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직책을 수행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사 이동이나, 노동조합의 위원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위원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정책 및 운영 내용

-기능: 윤리강령 또는 실천요강의 유권해석, 세부시행기준 및 방법 결정, 위반행위 조사 및 경고, 회사에 징계권고
-회의: 부서별로 정해진 수의 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호선하여 10인 내외 윤리위원 구성. 사안에 따라 과반 혹은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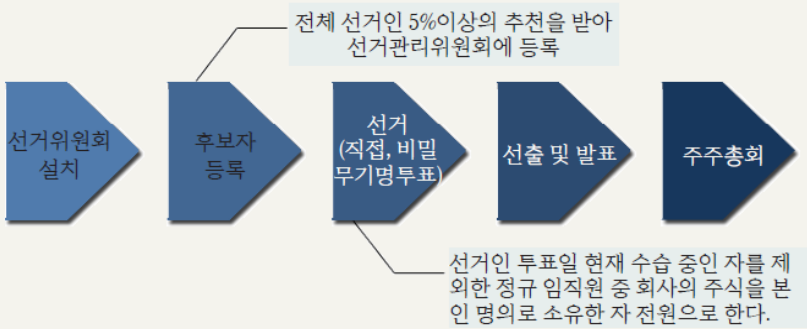
기타 활동

❖ 한겨레 취재원이 보내온 명절 선물등은 인근 사회복지재단(사랑의 전화)에 기부
❖ 한겨레 창간기념일이나 주요 인사발령시 들어온 각종 화환을 임직원에게 재매각 후, 기금은 전부 인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3)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투명한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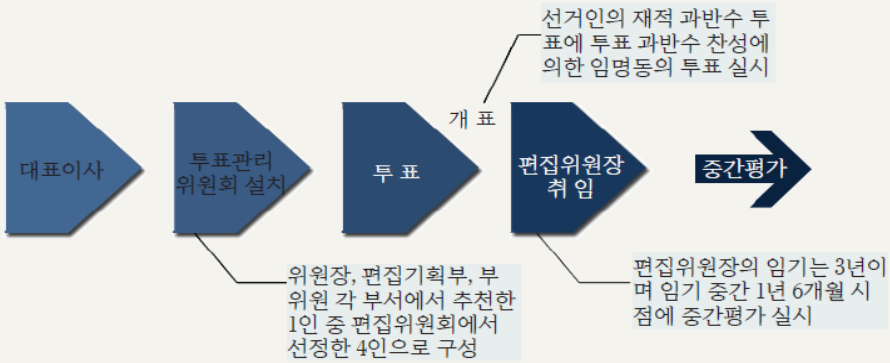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이사회를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전문적 조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지도록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4명,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과 직무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활동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주가 없는 국민주 신문사로 회사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의 직접 평등선거에 의해 대표이사 후보를 선출한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4) 편집권 독립제도

한겨레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명동의를 요청한 편집국장 후보에 대해 임명동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취재보도 준칙 이행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1월 취재보도 준칙을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우리나라의 '참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보도 준칙은 총 5개 준칙, 이하 세부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한겨레 기자의 책무 (진실 추구, 공공이익 우선, 인권 옹호, 편견의 배제, 독자 존중)

2. 공정한 보도 (충분한 취재와 보도, 논쟁 중인 사안에서의 균형, 사회적 약자/ 대립되는 이해관계/ 국익/ 남북관계 등에서의 공정한 보도, 반론 기회의 보장)

3. 정직한 보도 (확인보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취재원의 실명 표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익명보장, 비밀엄수 의무 등)

4. 취재·보도의 기본 자세 (취재원 보호, 사생활 존중, 희생자/ 피해자 배려, 차별적 표현의 배제, 범죄보도, 관련 법률 준수 등)

5. 이해상충의 배제 (진실보도 우선, 사적 이익추구 금지 등)

"19년 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엄격하면서도 자율적인 언론윤리의 실천을 추창한 한겨레신문은
이 땅의 언론이 스스로 쌓아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다시금 참 언론을 실현하는 선두에 서고자
정관과 윤리강령에 바탕을 둔 취재보도 준칙을 만들어 공표한다."

-한겨레 취재보도준칙 전문 中

6) 반부패 관련 보도활동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사회 조직 및 기관의 재산
부당취득, 횡령, 뇌물 수수 등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포스코 '잃어버린 5년', 그 많던 자산은 누가 먹었을까 〈한겨레〉 2015.4.10일자

옥시싹싹, 침묵의 살인자는 입을 닫았다
〈한겨레〉 2015.5.29일자

국내 '눈속임' 폭스바겐·아우디, 12만여대 집계 〈한겨레〉 2015.10.1일자

정경유착

경남기업 특혜의혹 배경에 드리운 큰 그림자의 주인공은? 〈한겨레21〉 2015.5.11일자

'비리 경제인' 사면 제한한다더니…박 대통령 또 공약 뒤집어
〈한겨레〉 2015.8.13일자

정부·사회

'최경환 인턴채용 비리' 검찰수사 불공정
〈한겨레〉 2015.12.17일자

'세월호' 청해진해운 대표, 2심서 7년형으로 감형
〈한겨레〉 2015.5.12일자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eri@hani.co.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6 (공덕동)
전화 02-710-0070
Fax 02-710-0080
웹사이트 http://www.hani.co.kr